

# PE라벨 접착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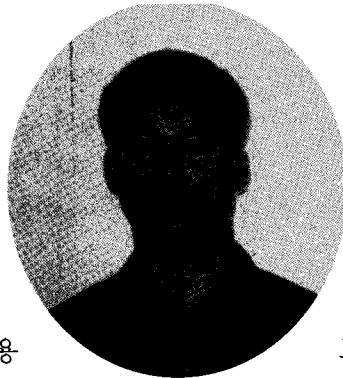
## 신념과 열정의 결과

김경석 / (주)현대산업 가공부 과장

**제** 4회 한용교포장인상 연구 개발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김경석 (주)현대산업 가공부 과장은 PE필름을 플라스틱병에 접착하는 장치를 개발한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기존 플라스틱병에 라벨을 접착할때에는 열융착기술을 이용하여 라벨링하는 것이 일반적 기술이었으나 김 과장은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열을 가하는 공정을 과감히 제거한 접착기법을 개발하여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과장은 “요즘 한창 CF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충분히 시도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에 진심으로 동감합니다”며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노력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1985년 현대산업에 입사한 김 과장은 초기에는 영업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 후 10년 전부터 생산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생산공정에는 문외한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생산파트의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통솔하려하니 여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담담히 밝히는 김 과장은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노력하다 보니 기술자들과도 말문을 트고 지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처음 현대산업이 라벨용 필름을 기존의 열수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라벨링 할 수 있는 개발을 시작한 것이 1999년 12월부터이고 대량생산체제로 들어간 시점이 2000년 11월경이다.

약 1년의 개발기간 동안 김경석 과장은 거의 개인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연구에 몰두했다. 말이 쉽지 이렇게 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연구환경이 좋은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서, 설사 여건이 좋더라도 내 자신의 일이 아닌 회사 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열정을 쏟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은 일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 보통사람의 상식이다.

## “無에서 有를 창조한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개발에 대한 열의 하나로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한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어디서나 메모를 했습니다. 자다가도 하고, 길을 걷다가도 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김 과장의 말에서 그가 쏟은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어려웠던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때마다 사장님과 전무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며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국내 식품용 라벨 시장은 PVC재질이 올해 1월부터 규제됨에 따라 PET, OPS 등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모두 열수축방식에 의한 라벨링 기술에 적용되는 재질이다.

그런데 현대산업이 개발한 PE재질 라벨 접착 기술은 열수축방식이 아닌 접착제에 의해 부착하는 기술로 열수축 생산공정이 과감히 삭제됨으로써 원가절감에 한 몫 단단히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현대산업은 일본수출용 병에만 이 재질의 라벨을 사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지금 현대산업의 생산능력에 벅찰 정도로 주문이 밀려오고 있다”고 소개

했다.

일본수출에 대해, “일본의 수입품 통관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업체요구사항도 엄격해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사실 국내에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불량도 일본에서는 클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현재는 국내업체와도 생산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발에 성공하면서 성공 그 자체보다 1년 동안 내 자신이 많이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마흔을 넘은 나이에 이렇게 한 일에 열정을 쏟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끝으로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본 가족들, 회사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신념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자 원천이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이 좀더 윤택해지고 발전하는 게 아닐까? 김경석 과장의 1년 간의 신념과 열정이 좀 더 발전된 포장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

박기진 기자